

라치카·스테이씨 흥 폭발 축하무대…동아스포츠대상을 빛냈다



가장 ‘핫’한 스타들이 무대에 나섰다. 대한민국에 ‘춤 열풍’을 몰고 온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라치카와 신인 걸그룹으로 앨범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스테이씨이다. 이들이 6일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 대상’ 시상식에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 “우리가 ‘라치카’다”

“우리가 ‘뽐’의 대명사잖아요. 제대로 ‘뽐’ 낼게요!”

이것이 ‘짬바’(오랜 경력에서 풍기는 분위기)이다. 역시 노는 법을 아는 ‘언니들’이다. 무대에 오르기 10분 전 대기실에서 휴대전화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풀어 춤 동선을 맞춘다. 눈빛만으로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한다. 곧이어 오른 무대. 3분 남짓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라치카”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다. 수상자를 비롯한 참석자들도 휴대전화 동영상 찍기 바쁘다. 조용하던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라치카의 리더 가비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의 원픽은 야구인데, 시구를 노리고 있다. 시구를 위해 춤을 응용한 포즈도 정해놨는데 불러만 달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 “당찬 신인 ‘스테이씨’가 왔다”

“유명한 선수들 앞에서 공연하는 게 믿기지 않아요!”

신인들답게 설레면서도 당차다. 쟁쟁한 프로스포츠 선수들 앞에서 무대를 펼치게 돼 “떨릴 것 같다”며 엄살을 피웠지만, 정작 히트곡 ‘색안경’ ‘ASAP’을 소화하며 장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스테이씨는 에이핑크와 트와이스 등 인기곡을 만든 프로듀서팀 블랙아이드필승이 제작한 그룹. ‘4세대’ 걸그룹 대표 주자로 이미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공연을 마치고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싶다. 상을 받은 모든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인사했다. 이어 “언젠가 시구에도 도전하고 싶다.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일곱색깔 사랑 ‘해피 뉴 이어’ vs 성탄 감성 ‘러브 액츄얼리’

멀티캐스팅 ‘해피…’ 29일 개봉
재개봉 ‘러브…’와 흥행 맞대결

국내의 톱스타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톱스타급 배우들이 성탄과 연말시즌을 겨냥하며 힘을 모은 두 편의 영화가 흥행 맞대결을 벌인다. 한지민·이동욱·강하늘·이광수·고성희·임윤아 등이 주연하는 ‘해피 뉴 이어’와 휴 그랜트·리암 니슨·폴린 퍼스·키이라 나이틀리·엠마 톰슨 등 출연한 ‘러브 액츄얼리’이다. ‘해피 뉴 이어’는 29일 선보이며, ‘러브 액츄얼리’는 23일 재개봉한다.

‘해피 뉴 이어’는 한지민·이동욱·강하늘·이광수·고성희·임윤아와 함께 중견 정진영과 이해영 등이 힘을 보탠 영화이다. 한 호텔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14명의 인물이 각기 커를을 이뤄 펼치는



‘크리스마스 강자’로 꼽히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와 한지민·이동욱·강하늘 등 국내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연말시즌을 겨냥한 영화 ‘해피 뉴 이어’(왼쪽부터)가 각각 23일과 29일 극장에 내걸린다. 사진제공 | 제이앤씨미디어그룹·CJ ENM



일곱 색깔 로맨스를 그린다. 2005년 엄정화·황정민·주현·오미희·서영희·정경호 등이 출연해 흥행한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멀티 캐스팅’ 영화의 계보를 잇는다.

‘러브 액츄얼리’는 2003년 휴 그랜트·리암 니슨·폴린 퍼스·키이라 나이틀리·엠마 톰슨 등이 주연한 영화로, 크리스마스 시즌의 ‘스태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16일 201개관에서 재

개봉해 첫날 박스오피스 6위에 올랐다. 2019년에는 16개 스크린에서 관객을 다시 만났다. 2017년 86개 스크린에 내걸려 10위를 차지했다.

‘러브 액츄얼리’는 다만 재개봉 영화인 만큼 올해에도 신작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관객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영화에 대한 관객의 관심이 여전한 상황에서 신규 개봉작인 ‘해피 뉴 이어’가 개봉 규모로는 ‘러브 액츄얼리’와 크게 차이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피 뉴 이어’와 ‘러브 액츄얼리’의 흥행 맞대결은 지난 추억의 감성과 현재 관객의 정서가 맞부딪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러브 액츄얼리’가 오래 묵혀둔 추억을 새록새록 꺼내 맛보는 무대라면, ‘해피 뉴 이어’는 현재 관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스타들이 펼쳐내는 당대의 발랄한 로맨스를 펼쳐낼 전망이다.

윤여사 기자 tadada@donga.com

이영지·다비치·이시영 ‘온라인 새 강자’

이영지, 스타 초대 유튜브 인기
다비치, 300만뷰 개그듀오 별명
이시영 1분짤로 ‘틱톡’ 스타 부상

가수 이영지, 그룹 다비치, 배우 이시영이 최근 온라인 콘텐츠 강자로 떠올랐다. 제각기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각종 동영상 SNS 플랫폼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 사이에서 새롭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영지는 최근 유튜브 채널 ‘차린 건 없지만’을 통해 스타들을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내놓고

있다. 가수 청하, 백예린, 오마이걸 유아 등이 출연한 영상은 최대 280만뷰까지 얻었다. 또 다른 채널 ‘이영지’로는 다이어트 과정 등 일상을 코믹하게 담고 있다. SNS의 질의응답 기능을 이용해 팬들과 직접 대화하기도 한다. 재치 넘치는 질문과 답변이 가득한 대화 게시글도 SNS상에서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다.

다비치의 강민경과 이해리는 유튜브 채널 ‘강민경’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M BTI(성격유형 검사) 등 온라인상 유행 소재와 13년간 쌓아온 ‘케미스트리’(호흡)를 영상에 녹여 71만 구독자에 최대 350만 조회수를 모았다. 발라드 듀오의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면서 최근 ‘개그 듀오’라는 별



가수 이영지, 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과 이해리, 배우 이시영(왼쪽부터)이 SNS 동영상 플랫폼에 재기발랄한 콘텐츠를 내놓으면서 인기를 높이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틱톡 영상 캡처

명까지 얻었다.

이시영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올리는 틱톡에서 ‘스타’로 꼽힌다. 6일 현재까지 무려 1600만 팔로어를 모으며 각 영상도 100만뷰를 훌쩍 넘기고 있다. 지인들과 펼

치는 코믹하고 기발한 상황극 덕분이다. 이를 따라하는 ‘밈’(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영상이나 유행어) 영상도 국내에서 꾸준히 올라 해외 팬들에도 부쩍 늘러가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11

연예뉴스 HOT 5

개그맨 장동민, 일반인 여성과 19일 결혼



장동민

개그맨 장동민(42)이 결혼한다. 6일 장동민의 소속사 엘디스토리는 “장동민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가에 따르면 장동민은 비연예인 여성과 교제해왔으며, 19일 제주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조용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KBS 19기 공채로 데뷔한 장동민은 최근 MBC ‘구해줘! 홈즈’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솔비, 스페인에서 열린 PIAB 21서 대상 수상



솔비

가수 겸 화가 솔비(권지안)가 세계적인 미술상을 받았다. 솔비가 4·5일 스페인에서 열린 ‘2021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 어워드’(PIAB 21)에서 대상인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를 거머쥐었다고 PIAB 21 측은 6일 밝혔다. PIAB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재능이 두드러진 예술가에게 주어진다. 솔비는 전 세계 100여명의 현대미술가들이 참가한 무대에 메인 작가로 초청받았다. ‘저스트 어 케이크(Just a Cake)’ 시리즈 등 13점을 선보였다. ‘제2의 피카소’로 불리는 조형미술가 로베르트 이모스 등 7명의 심사위원들은 솔비가 “역동적인 표현과 독창성”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솔비는 이번 수상에 따라 일본 도쿄 등 해외에서 전시회를 펼칠 예정이다. 그는 10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서울 강남구 갤러리나우에서 개인전 ‘영혼의 빨래’를 연다.

설경구·고두심, 영화제작자가 뽑은 톱



설경구

고두심

설경구와 고두심이 영화제작자들로부터 최고의 배우로 꼽혔다. 17일 제8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시상식을 주최하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는 6일 ‘자산어보’의 설경구와 ‘빛나는 순간’의 고두심을 올해 남·녀주연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작품상은 ‘모가니슈’, 감독상은 ‘자산어보’의 이준의 감독에게 각각 돌아갔다. 올해 신인감독상과 신인배우상은 ‘소리도 없이’ 홍의정 감독과 ‘어른들은 몰라요’·‘인질’의 이유미가 첫 수상한다. 특별공로상은 ‘여고괴담’ 시리즈를 만든 제작사 씨네 2000의 이춘연 대표에게 주어졌다.

에스파, 美 트레버 노아 토크쇼 출연



에스파

그룹 에스파가 8일(한국시간) 미국 코미디 센트럴 채널의 심야토크쇼 ‘더 데일리 쇼 위드 트레버 노아(The Daily Show with Trevor Noah)’에 출연한다. ‘더 데일리 쇼 위드 트레버 노아’는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가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풍자해온 무대이다. 에스파는 이어 10일에도 미국 폭스 채널의 토크쇼 ‘더 닉 캐논 쇼(The Nick Cannon Show)’에도 나선다.

빅뱅 태양-민효린 부부 첫 아들 탄생



태양

민효린

그룹 빅뱅의 멤버 태양과 민효린 부부가 최근 아들을 얻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민효린이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3년 만에 부모가 됐다. 태양과 민효린은 2014년 처음 만나 4년 만인 2018년 결혼했다. 민효린은 올해 9월 임신 사실을 알린 바 있다.